조선민화그림책(15)

심청전

각색 박성령
그림 조기철

금성청년출판사
주체99(2010)

조선민화그림책

어린 동무들에게

어린 동무들, 동무들은 옛이야기를 좋아하지요?

어렸을 때 들은 재미나는 옛말들은 어른이 된 후에도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는 동무들을 위하여 조선민화그림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동무들이 이 그림책을 즐겨보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빛내여갈 참된 마음을 키워가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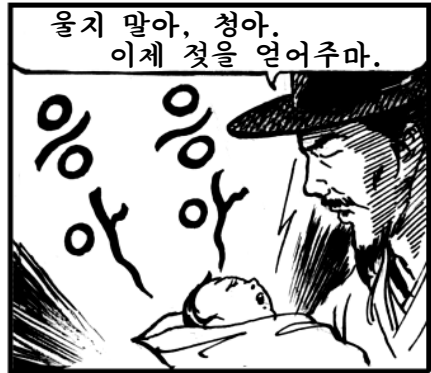
이 그림책은 18세기에 창작된 고전소설 《심청전》을 각색하여 만든것입니다.
작품에서 그려진 눈먼 아버지에 대한 심청의 지극한 효성은 우리 민족의 고상한 도덕품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습니다.
학생동무들은 이 책에서 불합리한 사회제도와 불교승려들의 허위성, 환상적인 장면들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없이 푸른 바다 한가운데 하늘나라 꽃 한송이가 두둥실 피여났습니다.
큰 배도 단숨에 삼켜버린다는 여기 림당수에 어인 일로 이렇듯 아름다운 꽃송이가 피여난것입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제 자식이 심청이와 같은 효녀가 되여주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고 키워준 부모에게 효도하는것은 응당한 일이건만 어이하여 심청에 대한 옛 전설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것일가요.

꼬끼오
젖 좀 주오 젖 좀 주오
엄마 잃은 우리 아기
배가 고파 울고있소
맑은 여울 시내가에
빨래 하다 쉬는 사이
이 애 젖 좀 먹여주오

찌는듯한 해볕에
김을 매다 쉬는 사이
이 애 젖 좀 먹여주오

울지 말아, 청아.
이제 젖을 얻어주마.
응아
응아

저기 심봉사가 와요.
에그, 불쌍도 하지.
앞못보는 신세에 안해까지 잃었으니
저 어린것을 어떻게 키울고…

봉사님,
조심하십시오.

아주머니들, 어미 잃은 어린것을 불쌍히
여겨 댁의 귀한 아기 먹다 남은 젖 있거들랑
이 애 좀 먹여주오.

이리 주시오이다.

아가, 어서 먹어라.

이리 줘요. 어ㅡ 용쿠나.

아주머니들, 우리 애를 위하여 이렇듯 마음쓰니 정말 고맙소이다.

봉사님, 왜 이러시오. 어렵게 생각말고 래일도 모레도 안고 오시오이다.
그렇지 않구요. 우리 애는 못먹여도 이 애야 굶기리까.
이 은혜 잊지 않겠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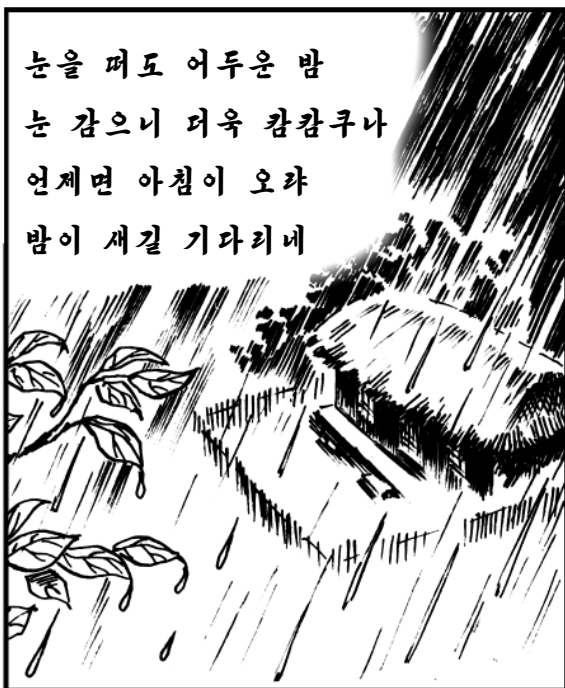
아가 아가 울지 말아
밤이 가고 날 밝으면
동냥젖을 얻어주마

배가 고파 네가 울면
너의 엄마 생각나서
눈먼 아비 가슴탄다

응아
응아

어이구, 이 깊은 밤 어디 가서 젖을 얻어온단 말이냐.

청아, 이 죽물을 젖으로 알고 어서 먹으렴.

이 눈먼 아비 죽고 너의
엄마 살았어야 하는건데.
아…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뱃쫑
뱃쫑

뱃쬬르릉
삐잇쫑
엉? 이 애가 새벽부터 어디
에 갔을가?

청아

벌컥
청아
청아
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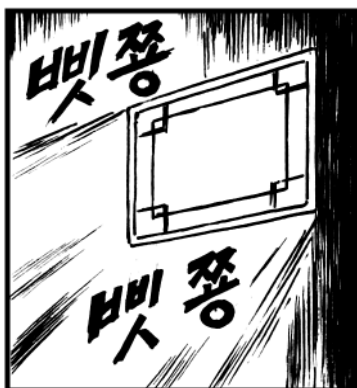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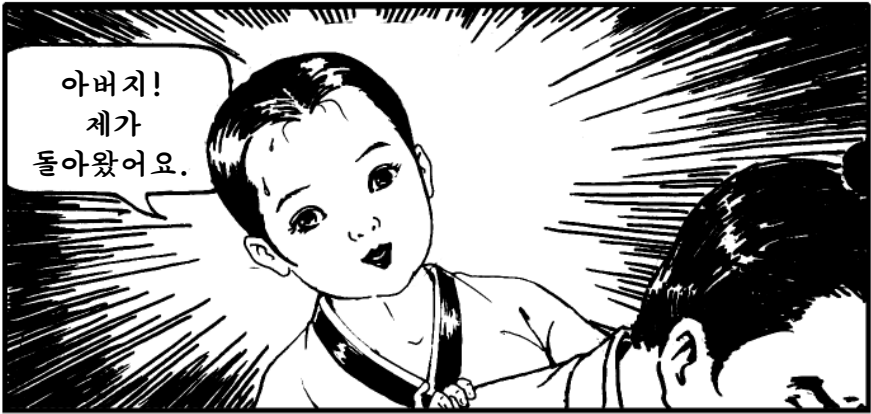
아버님이 기다
리시겠구나.

아버지!

?
어딜 가셨나?

벌컥

?!

아버님이
노하셨구나.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누가
너더러 이
아비 밥동
냥 다니라
더냐?
엉?

눈먼 아비노릇 하는것만도 가슴에
피눈물이 맺혔는데 내 살아있는 한
너한테까지 그런짓을 시키지
못해!

너의 어미 이걸 보았더라면 무덤속에서라도 눈을 감지 못했을게다. 쓸모없는 이 목숨은 왜 질겨가지구 어린 딸을 고생시키노! 어이구－
아버지, 울지 말아요. 아버지가 우시면 난 어떻게 하나요?
청아!
아버지!
흑흑
아버지, 진지 드세요.
!
아버지,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겠으니 들으시면서 어서 드세요.

아빠아빠 웃으세요
꽃과 같이 웃으세요
아빠꽃이 웃으시면
애기꽃도 방긋 웃죠

허허

아버지, 좋나요?
오냐, 정말 향기가 짙구나.

꽃은 또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그렇테지. 하지만 내겐 우리 청이가 세상에서 제일 고운 꽃이다!

네 얼굴을 한번만이라도 볼수만 있다면 이 아비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귀덕이네 집

아니, 청이가?! 너 언제부터 기다렸냐? 에그, 온몸이 꽁꽁 얼었구나. 어서 들어가자. 어서…

부글
몸을 녹이고 많이 먹고 가거라. 자, 따끈따끈한 팥죽이다.
부글

고마와요. 하지만 추운 방에서 아버지가 홀로 앉아 저 오기만 기다리시니 어찌 혼자 먹겠나요.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먹겠어요.
청이가 정말 용쿠나.

인사는 무슨… 어서 가봐라.

후
맛있냐?
응, 정말 맛있네.

아니, 아버님이?!

아버지!
애야, 넘어질라.

오래 기다리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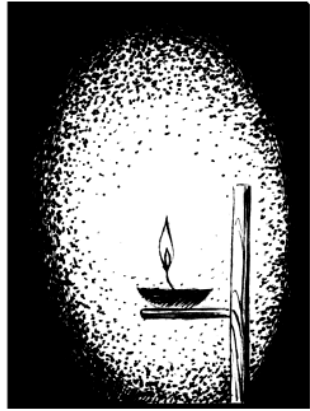
에그,
손이 꽁
꽁 얼었
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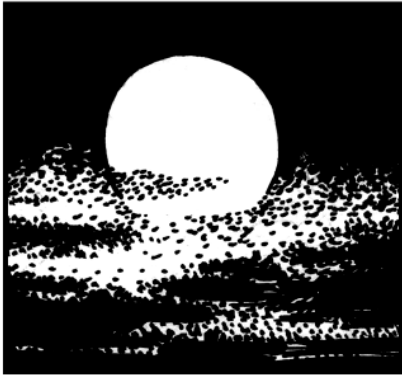
어서 들어가자.
예.

얼마나 추웠겠니?

아빠, 나 하나도 춥지 않아요.

다른 집 애들은 부모
잘 만나 근심걱정 모
르는데 너만은 못난
애비를 만나 이 고생
을 하는구나.

아버지, 왜 이러시나요.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받는것이 응당한 일인데 그런 말씀 마세요.
어휴,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편편하던 놈이 소경이 되다 못해 저 귀한 딸자식까지 고생시키누…

아, 답답한 이 어두운 밤이
언제면 새려나…

꼬끼요

오로지 앞못보는 아버지를 위하여 바치는 그 지극하고 뜨거운 효성의 나날속에 어느덧 우리의 주인공 청이는 아름답게 피여난 꽃송이마냥 어여쁜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심청이가 저렇듯 다 자랐으니 이젠 심봉사도 한결 마음을 놓게 됐수다.
꼭 제 엄마 라니까요. 얼굴두 마음씨두 곱고 또 일솜씨에선 마을에서 따를 처녀가 없다오.

그럼 가보겠수다.

무슨 일일가?
글쎄?

어, 시원하군.

그래 좀전에 왔던 사람은 무슨 일로 널 찾더냐?

건너마을 장씨부인이 부른다니 어쨌으면 좋을지…

무릉촌 장씨부인 말이냐?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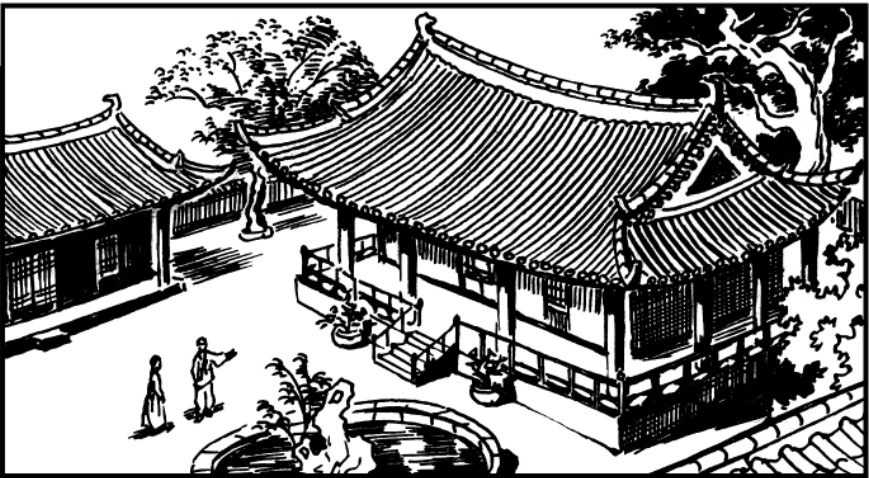
그럼 어서 가봐라.

제가 가면 아버지의 시중은?

모처럼 부르신다니 아니 가겠느냐?
내 걱정일랑 말고 어서 가뵙거라.

청아, 그 부인으로 말하면 한때 벼슬길에 올랐던 사람의 부인이니 매사에 실수없이 조심하여 갔다오너라.

그럼 다녀오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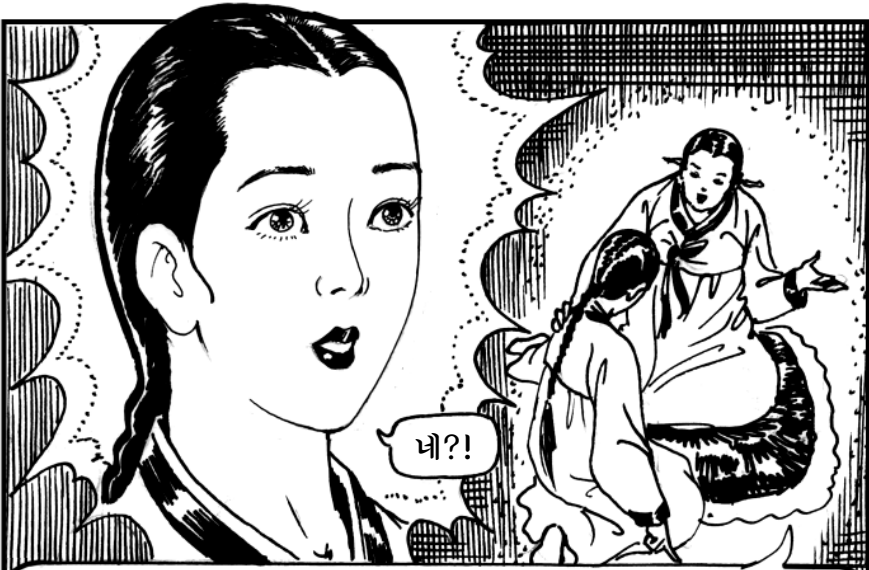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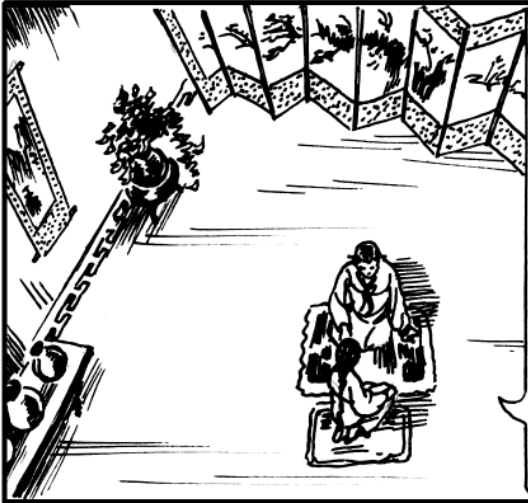
장씨부인댁

소녀 심청 문안드리옵니다.
오냐, 어디 좀 보자.

네가 심청이냐.
과연 소문그대로 예쁘구나.

심청아, 내 말을 들어라.

우리 집 어른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 있던 딸자식 마저 타고장으로 시집가다나니 지금 내곁엔 자식 손주 하나 없구나.

자나깨나 말벗이 없어 적적한 빈 방에 마주 앉는것은 초불이요, 기나긴 겨울밤에 보는것은 옛 책이란다.

심청아, 너의 집 가난한 사정 내 다 아니 속절없이 고생하지 말고 내 수양딸이 되여주지 않겠니?!…

네?!
그렇게만 된다면 바느질도 배워주고 글도 익혀 네가 시집 갈 때까지 내가 거두어주지. 그러면 외로운 나도 자식을 둔 재미를 보게 되니 네 생각은 어떠냐?!

저의 어머닌 절 낳은지 이레만에 세상을 떠나시다나니 전 어머니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엄마있는 애들이 늘 부러웠어요.

엄마있는 애들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린적도 한두번이 아니랍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는것이 저의 소원이였어요.

오늘 마님께서 비천한 저를 수양딸로 오라시니 돌아가신 친어머니를 뵈온듯 반갑고도 고마운 마음 헤아릴길 없습니다.

그럼 어서 내 수양딸이 돼주렴!

그렇게 하지? 응?

마님은 아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는 모르실
거예요.

태여나서 엄마를 잃고 젖도
없이 제가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올수 있었겠나요?

젖 좀 주오
젖 좀 주오
엄마 없는
우리 아기
배가 고파
울고있소

아마 저때문에 흘린 아버지의 눈물을 뿌린다면 온 마을을 적시고도 남을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두고 제가 어딜 간단 말입니까. 물론 댁에 들어오면 저야 좋겠지만 앞못보는 아버지의 시중은 누가 들겠나요.

지금 몸은 여기 와있어도 마음은 아버지한테 가있어요 . 제가 없는 동안 식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사이 무슨 일이나 생기지 않았는지… 마음을 놓을수가 없습니다.

마님, 용서하세요.

네 말을 듣고 보니 너야 말로 진짜 효녀로다. 늙은 내가 로망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구나.

심청아!

심청아, 이 늙은것을 잊지 말고 종종 찾아오너라.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한편
떵 떵 떵
날이 저물었는데
애가 왜 못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일이 없었는데…
내가 마중을 가야지!…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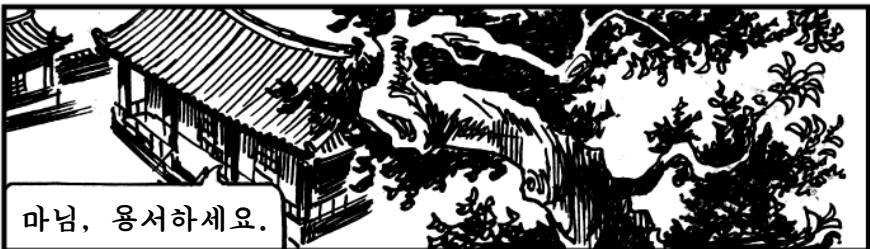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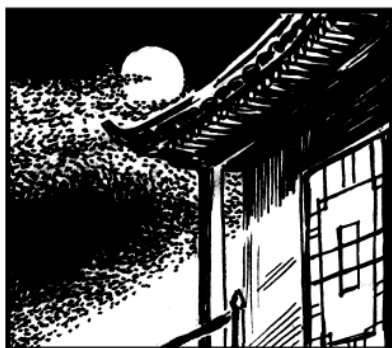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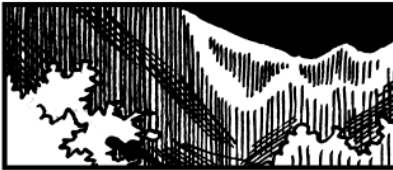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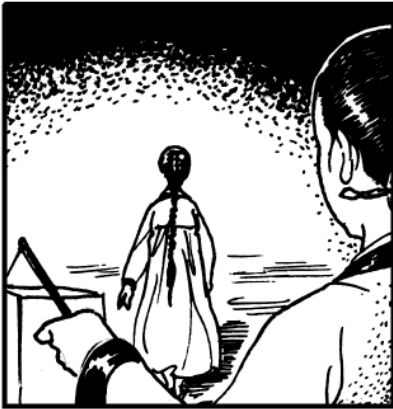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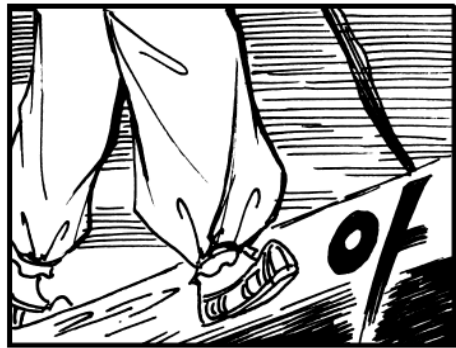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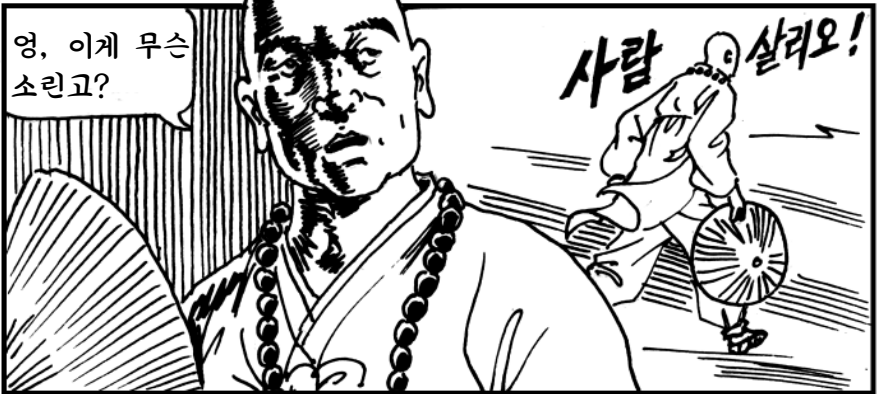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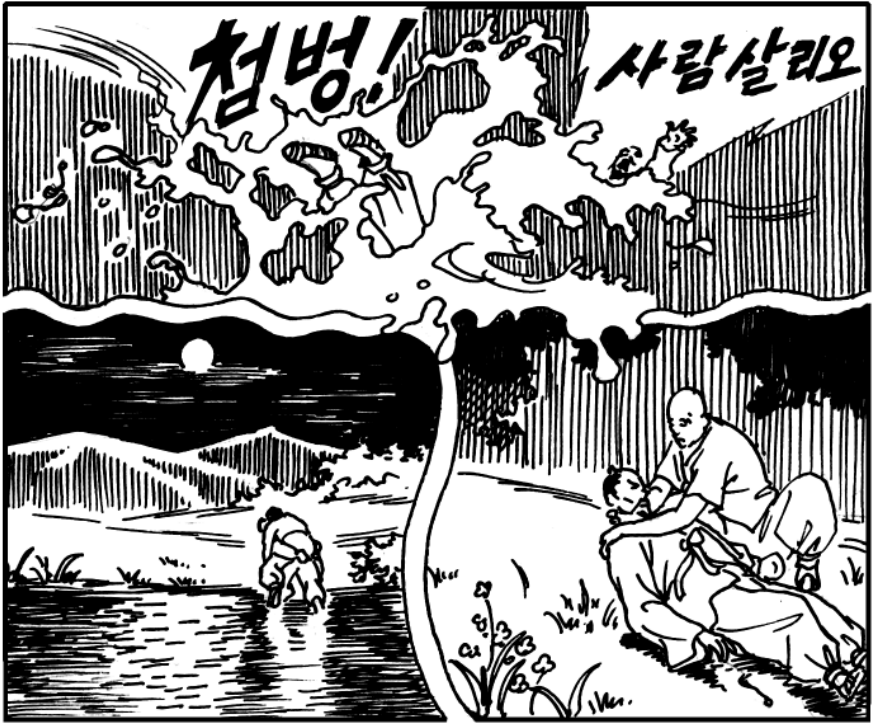
게 누가 없소.

첨벙

사람살리오! 사람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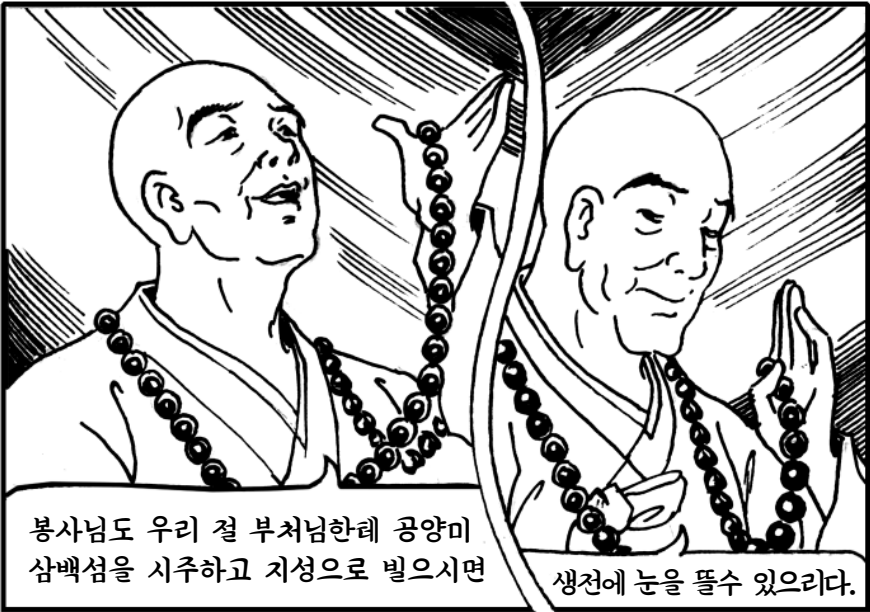
엉, 이게 무슨
소린고?
사람 살려오!

아니? 저런…
어푸 어푸!

힉

첨벙! 사람살리오

밝고밝은 하늘땅을 못보고 지내시는 봉사님의 신세 정말 가긍하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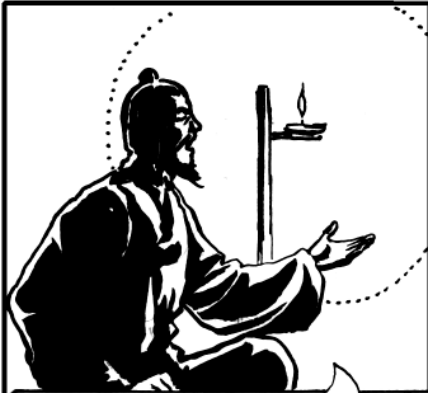
늙은 내야 이제 더 바랄것이 없지만 못난 아비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딸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열백번 죽고싶은 마음뿐이요.
후유

허, 진정하시고 내 말을 들으시오이다.

우리 절 부처님이 령험하시여 무엇이나 빌어서 아니되는 일이 없소이다.

아니, 그래 그게 정말이요?

아무렴요. 그러면 딸의 고생도 끝나고 천지만물 좋은 구경도 다 하실수 있으리다.

여보 대사님, 그럼 공양미 삼백섬을 권선문에 적어주시오.

허, 댁의 살림을 둘러보니 삼백섬은 고사하고 석되 쌀도 주선할길이 없을듯 하오이다.

여보시오 대사, 사람을 잘못 봤소.
이 심학규를 업수이 여겨도 분수가 있지.

자, 두말 말고 당장 적어넣으시오! 당장!

예, 그럼 적읍시다.

심학규
백미
삼백석

안녕히 계시오.
소승은 물러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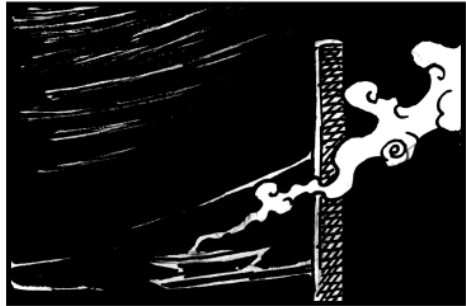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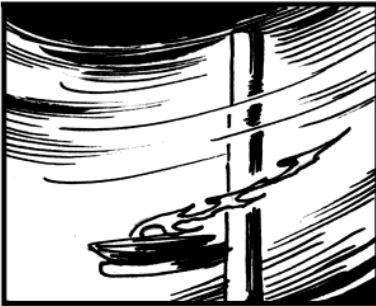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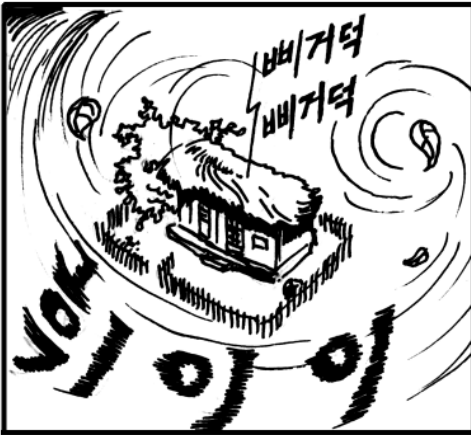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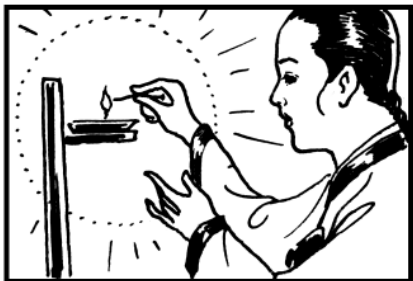
휘-이이
삐거덕
삐거덕

삐거덕
삐거덕
휘이이
휘이이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고! 가난한 우리 살림에 쌀 삼백 섬이 어디서 난단 말인가.
취소해야 한다!
벌떡

여보시오 대사, 어디 갔소?
여보시오
제발 돌아와주시오.
그래선 안된단 말이요.

휘익
삐거덕
삐거덕

빨리 가자. 빨리!

벌컥
아버지!
아니, 아버지. 웬 일이세요?

어마나, 아버님 옷이?!

절 마중하려 문밖에 나오셨다가 이런 욕을 보셨으니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시장 하실텐데 어서 진지 드세요.

나 밥 아니 먹으련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 한분만을 바라고 살고 아버지는 저 하나 믿으시여 큰 일, 작은 일을 모두 의논하시더니 오늘은 무슨 일로 절… 흑흑… 외면하시나요. 흑—

어쩌면

아버지가 이러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아가, 울지 말아. 내가 너에게 속일 일이 있겠느냐. 하지만… 네가 알면 큰 걱정이 되겠기에 차마 말을 못했다.

후… 아까 내가 너 오는가 하여 대문밖에 나갔다가 늪에 빠져 죽게 된걸 몽운사 중이 건져주어 이렇게 살아났구나.

그가 우리 집 사정을 듣고 하는 말이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섬만 시주하면 눈을 뜰수 있다기에

그만… 그렇게 하겠노라고 권선문에 적어넣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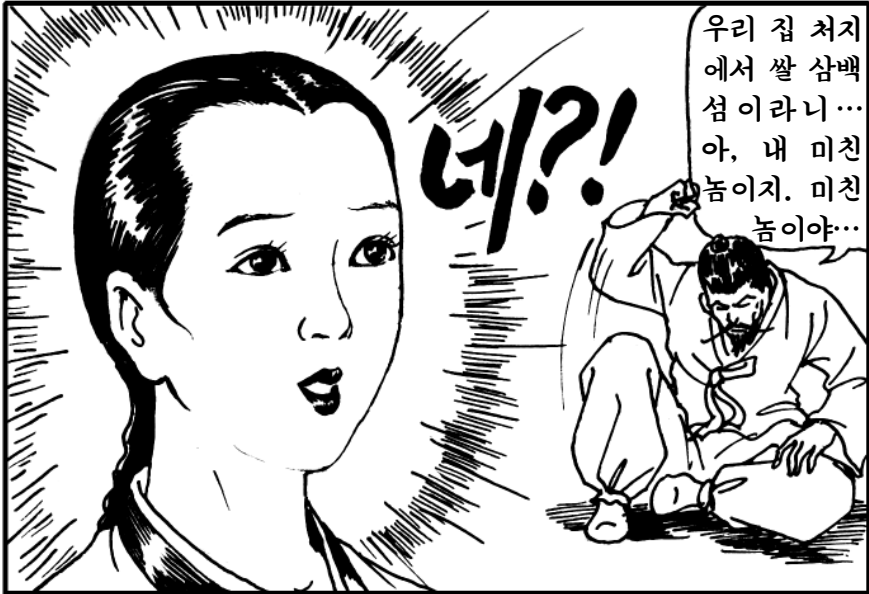
네?!
우리 집 처지에서 쌀 삼백 섬이라니… 아, 내 미친 놈이지. 미친 놈이야…

아버지, 너무 마음쓰지 마세요. 지성이면 감천 이라는데 이제 무슨 도리가 나서겠지요.
어휴

탁
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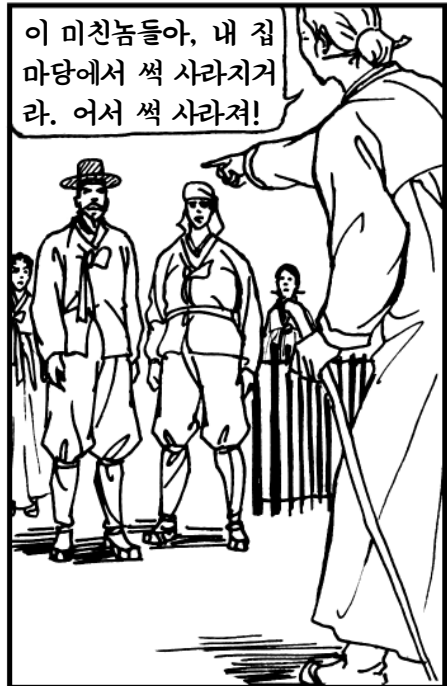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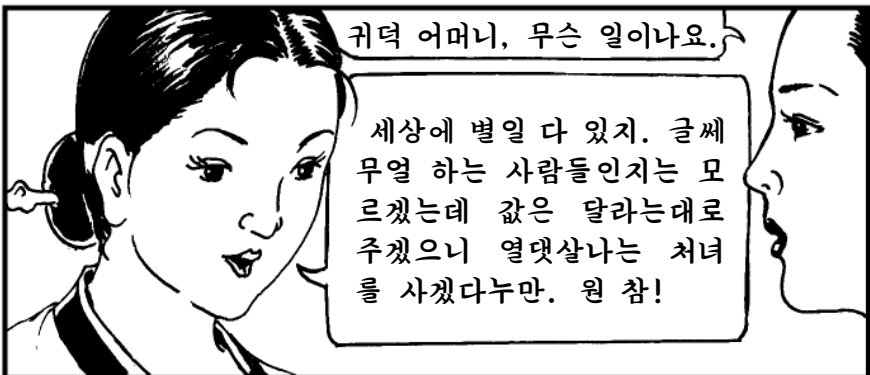
딸그락

모든게 다 내 잘못이야. 외롭게 홀로 계실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돌아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쿨럭
쿨럭

아버지, 정녕 아버지의 눈이 밝아질수만 있다면 이 딸이 어떻게 하나 마련해보겠으니 너무 근심마세요.

어느날
무슨 일일가?
웅성 웅성

이 미친놈들아, 내 집 마당에서 썩 사라지거라. 어서 썩 사라져!

썩 나가라. 썩!
웅성
웅성

할머니, 어서 들어가시자요.
어이구, 세상두 험악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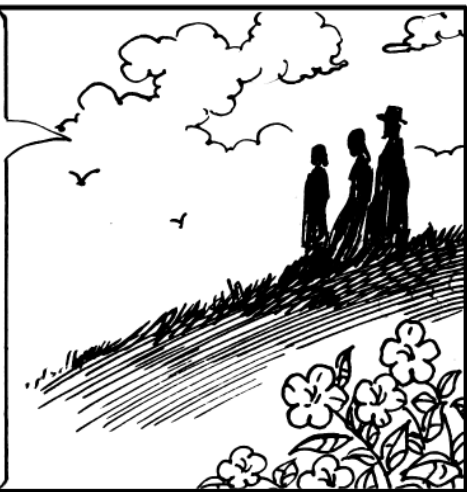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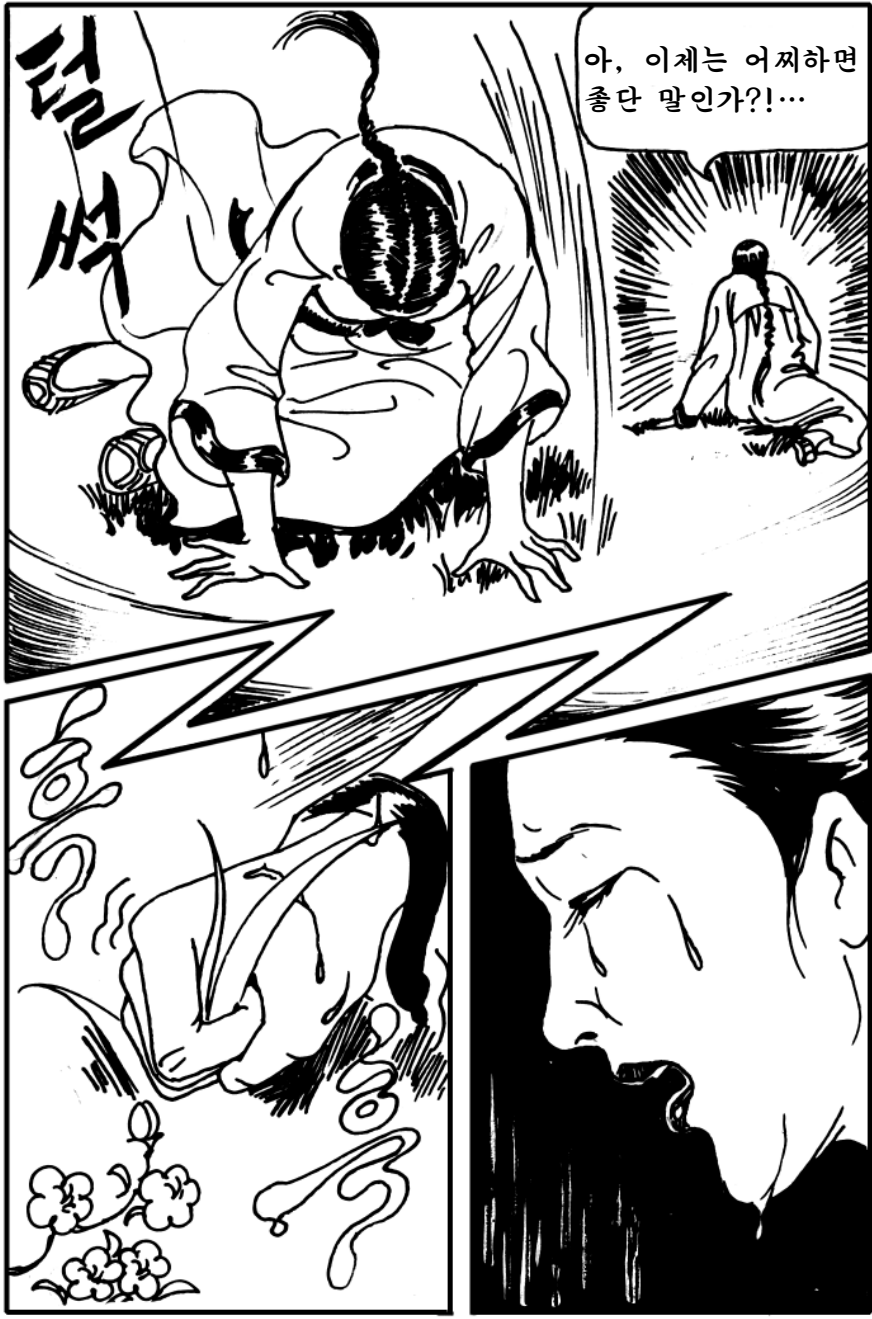
귀덕 어머니, 무슨 일이나요.
세상에 별일 다 있지. 글쎄 무얼 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값은 달라는대로 주겠으니 열댓살나는 처녀를 사겠다누만. 원 참!

그런데 배길에 사람도 배도 몽땅 집어삼키는 림당수라는 물목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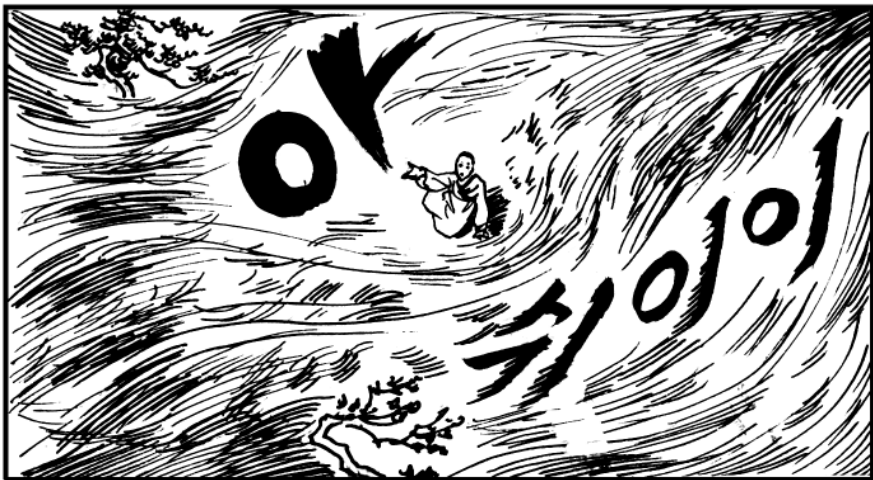
배주인의 엄한 령을 어길 수 없고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 할수없이 이 짓을 하오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한들 고기밥이 되겠다고 몸을 팔 처녀가 어디 있겠소.…

자, 우린 가세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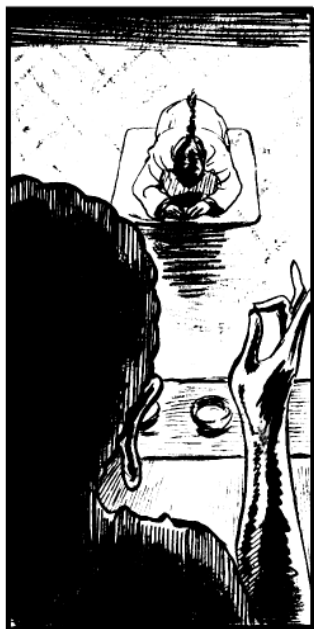
털썩
아, 이제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흐흑

어머니,
어찌하여 어머닌
연약한 저와 아
버지를 남겨두고
홀로 가셨나요.
네?!

응아
응아
응아

이 몸을 바쳐서라도 아버지
의 눈을 뜨게 해야 한다!
여보세요—
가지 말아요!

몽운사

부처님께 비나이다. 두손 모아 삼가 비오니 이 몸 바쳐서도 저의 정성 적사오면 소녀 죽어 저승에 가서라도 부처님만을 받들겠으니 불쌍한 우리 아버지 밝은 날을 보게 해주옵소서! 부디 소녀의 간절한 소원 이루어주시오이다.

뗑 뗑

정말
고맙소이다.

그런 말씀 말고 어서 허리를 펴시오.
심소저의 효성을 생각하면 그저 드려도
아까울것 없지만 배주인이 그렇게 할리 없
고 독촉이 불같아서 별도리가 없구려.

배 떠나는 날이 언제오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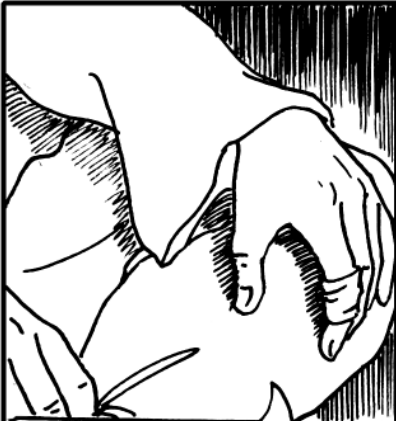
이달 보름날이요.

심청은 자기를 안아키워준 앞못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래도록 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미안해요.
오늘은 왜 이리 늦었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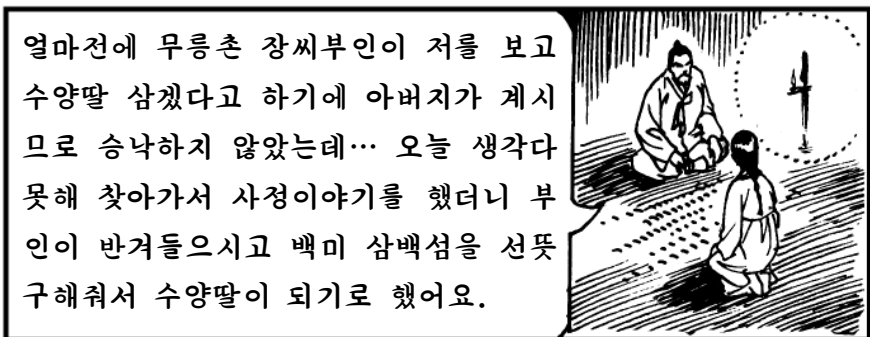
청이야,
이걸 좀 봐라.

어마나 댕기

아이, 이건 어디서
난거예요?!

널 주려고 마련한거다.
다 자란 네가 이 아비때문
에 언제 한번 처녀차림으로
나서봤냐? 네 어머니가
있었으면 그랬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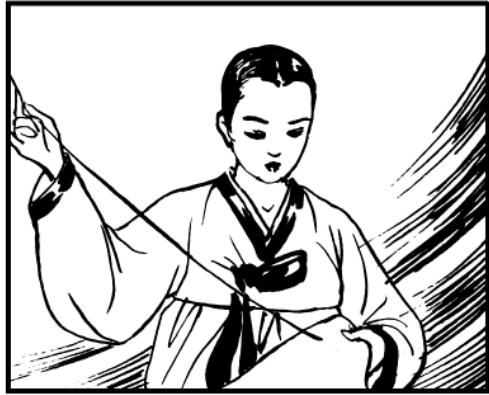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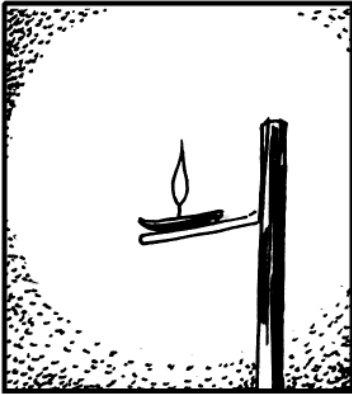
그런 말씀 마세요. 제겐 아버지
이상 없어요. 누가 절 키웠나요.
아버지가 저에겐 어머니였구 이
세상의 전부예요. 아버지!

흑흑

아버지!

얼마전에 무릉촌 장씨부인이 저를 보고 수양딸 삼겠다고 하기에 아버지가 계시므로 승낙하지 않았는데… 오늘 생각다 못해 찾아가서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부인이 반겨들으시고 백미 삼백섬을 선뜻 구해줘서 수양딸이 되기로 했어요.

음 … 내 걱정은 말아. 너에
게도 좋고 그 댁에도 좋으니
나도 한결 마음이 놓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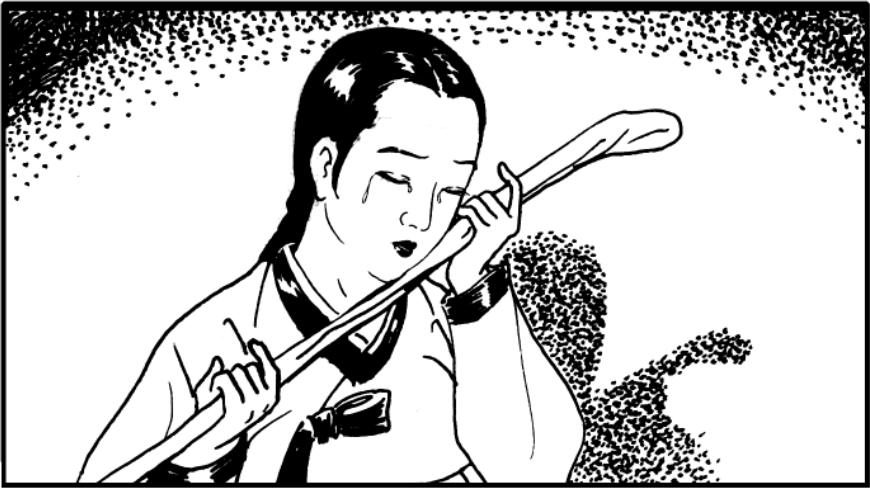
아버지!

내딸아!

저 달이 다 차면 이 몸도 끝이 날테지. 내가 죽는건 섧지 않으나 앞못보는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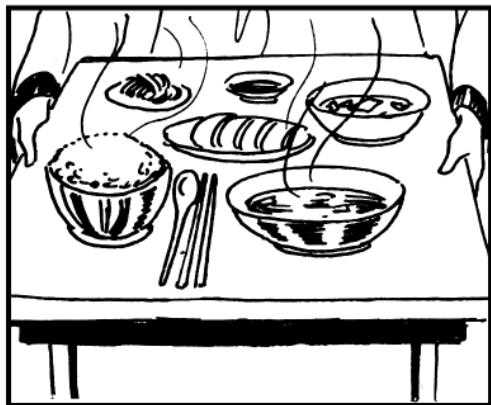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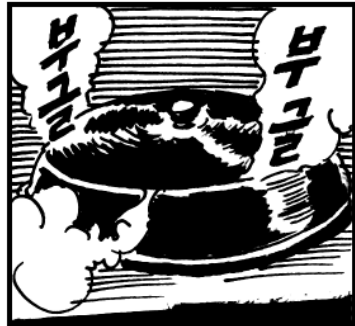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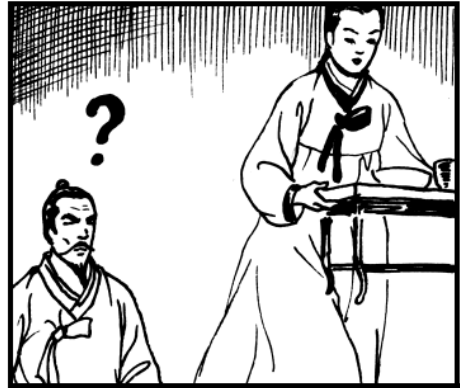
보름달아 지지 말아
래일 아침 솟는 해를
동해에 잡아두면
불쌍한 우리 아버지
하루동안 더 보련만
밤이 가고 솟는 해를
그 누가 막을소냐

꼬끼요

아

아버지, 어서 눈을 뜨시와요. 오늘 떠나가면 다시는 아버지를 뵈올 날이 없을거예요.

아, 벌써 왔구나.

저 … 오늘이 배 떠나는 날
이니 쉬이 가게 해주시오.

잠간 기다려주세요 . 아직 저의 아버진
모르고계시니 얼른 조반을 지어드리고
말씀올린 후 떠나도록 해주세요 .

그렇게 하시우.

부글
부글

딸그락
어, 정말 잘 먹었군. 오늘은 별로 반찬이 좋구나. 뉘 집에서 제사를 지냈느냐?
흐윽
?
아가, 어디 아프냐?
아니예요.
참, 오늘이 열닷새로구나.
탁

흐흐흑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일전에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많은 공양미 삼백섬을 누가 선뜻 주겠나요. 장사하는 배군들에게 몸이 팔려 림당수의 제물로 가기로 했으니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이오이다.

아

이 무슨 날벼락같은 소리냐?
아!…

아버지, 진정하세요.

비켜라.
내가 무슨
네 아비냐?
아비도
모르게 이
무슨짓이란
말이냐?
아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이 어리석은것아.
내 눈 팔아 너를 살릴 처지에 오히려 너를
팔아 내 눈을 사다니… 안된다! 네가 죽고
내 눈 떠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어미 잃은 널 동
냥젖으로나마 이
만큼 키워 이제는
한시름 놓았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
이냐!
쾅

이 고현 배놈들아, 아무리 돈벌이에 환장했기로 사람을 사다가 제물로 물에 처넣는 법이 어디 있다더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안된다, 안돼! 쌀도 싫고 돈도 싫고 눈뜨기도 싫다. 차라리 날 데려가거라. 평생 맺힌 마음 죽기가 소원이니 어서 날 죽여라!

아버지, 이 일은 제가 제 맘대로 저지른 일이지 남의 탓이 아니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보게들, 사람의 껍질을 쓰고 차마 이것을 어찌 보겠소. 심소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얼마씩 부담하여 불쌍한 늙은이가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자구.

옳소. 그렇게 합시다.

안된다

나를 버리고 어딜 가는거냐? 못간다! 못가!

애, 청아. 어디 있느냐?

아

청아, 가면 안된다!

동네사람들이 죽을 먹더라도 쌀 삼백섬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죽을 생각은 아예 말어라!

흑 흑

고마와요. 일찍 어머니를 잃은 제가 눈먼 아버지의 동냥젖으로 지금까지 살아온것은 귀덕 엄마랑 동네사람들의 따뜻한 인정덕이온데 그 은혜도 갚지 못하고 또다시 폐를 끼친다면 그게 무슨 사람의 도리겠나요.

그런 말 말고 생각을 달리해라.
청아, 그렇게 하지? 응?

제 떠나면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우리 아버지 부디 보살펴 주기 바라나이다.

얘야, 가지 말아.

청아

청아

심청은 고향마을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언덕에 오래동안 서서 눈물겨운 추억에 잠기였습니다.

이 언덕길로 동냥젖을 얻으려고 쉬임없이 오르내렸을 아버지!

어린 청이를 안고 발이 닳도록 젖동냥을 다니며 부르던 아버지의 구슬픈 노래소리가 저 넓은 마을 구석구석마다에서 애절하게 들려오는듯싶었습니다.

정녕… 아, 정녕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와 고마운 마을사람들과 리별을 하여야만 하는가. …

사랑하는 아버지와 리별해야 하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심청의 마음은 천만갈래로 찢어지는듯 아팠습니다. 청이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다시는 볼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슴속깊이 새겨안고 마음속으로 웨쳤습니다.

《아, 불쌍한 아버님… 부디 눈을 뜨시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옵소서!…》

아버지!

어영차
어영차

오늘도 날씨가 좋겠군!
아무렴, 저 처녀를 위해서라도 별일 없어야겠는데…
심소저, 찬바람을 맞지 말고 어서 들어갑시다.

아니 이런?

림당수다!

빨리 돛을 내려라!

아 럼당슈!
빨리 제상을 차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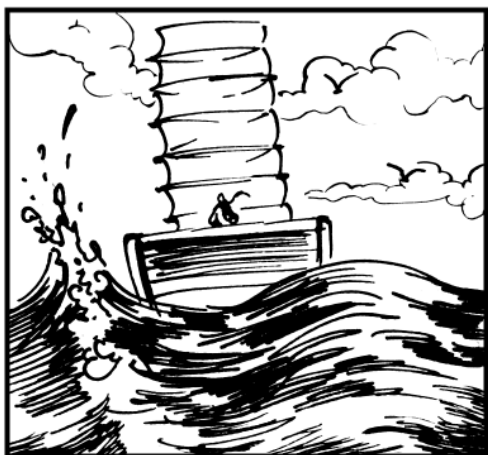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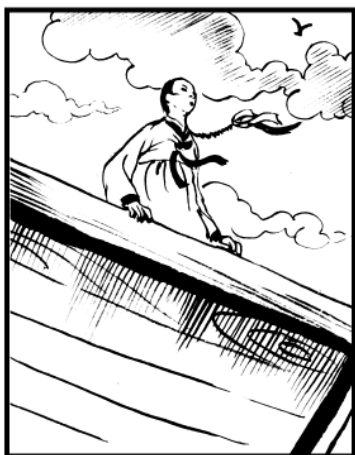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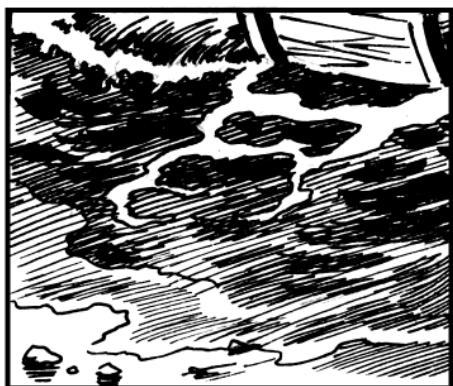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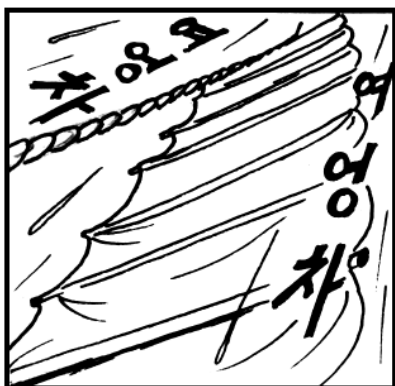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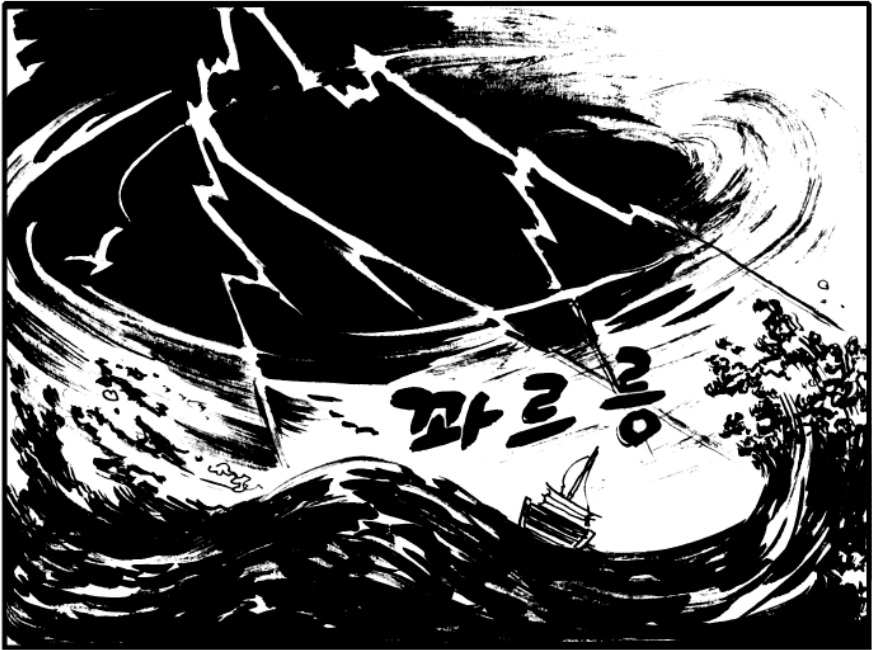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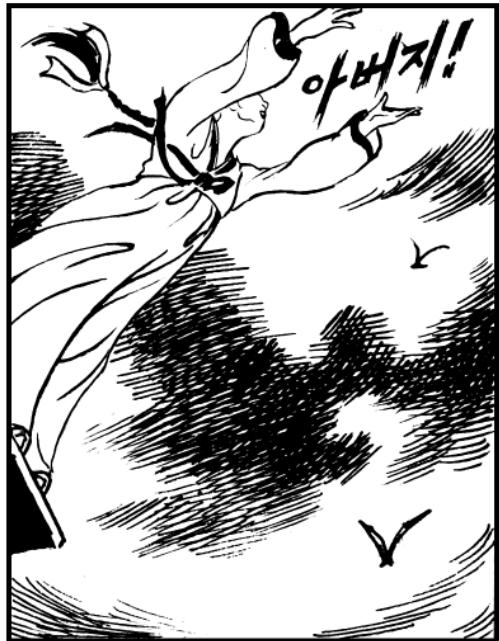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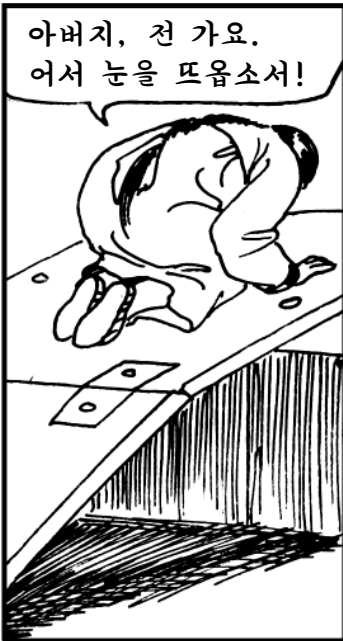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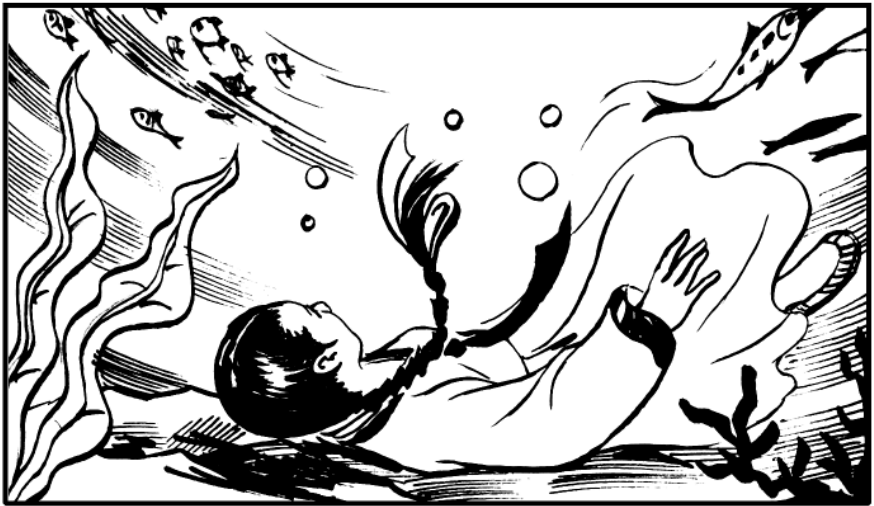
파르릉

어서 돌아오너라. 내 딸아!

아버님을 더 모
시지 못하고 가
는 이 딸을 부디
용서하시오이다.

아,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몸이 죽는것은 서럽지 않으나 앞못보는 불쌍한 저의 아버지 하루빨리 밝은 세상 보게 해주옵소서!

첨벙

꽈르릉

바다의 룡왕은 들으라! 이제 곧 림당수에 몸을 던진 효녀 심청이를 구원하라. 만일 지체하여 이 옥황상제의 령을 거역하는 날엔 죄를 면치 못하리라!

붕
부-웅
림당수를 다 뒤져서라도 심청이를 찾으라!

빨리 찾지 못하여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할 때엔 모두 엄벌에 처하리라!

저기 있다!

수정궁
이제 피여날거요.
여기가 어디오이까?
룡궁이오이다.
여봐라
우리 룡궁에 찾아온 귀한 손님을 잘 모시도록 해라.

알겠소이다

둥다당
부웅붕
챙
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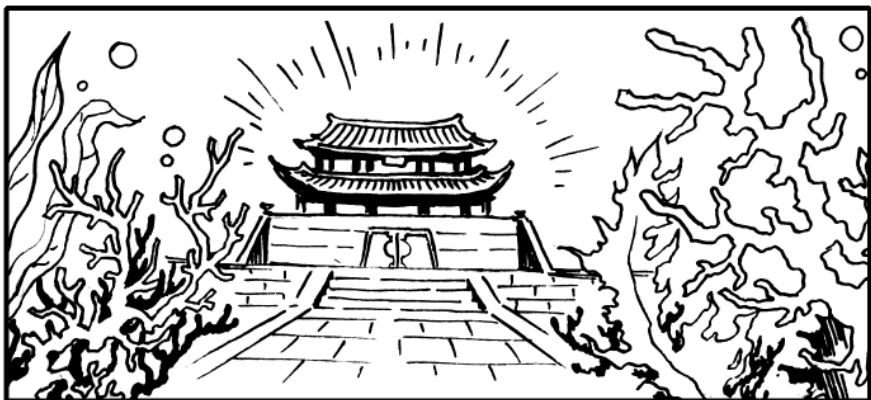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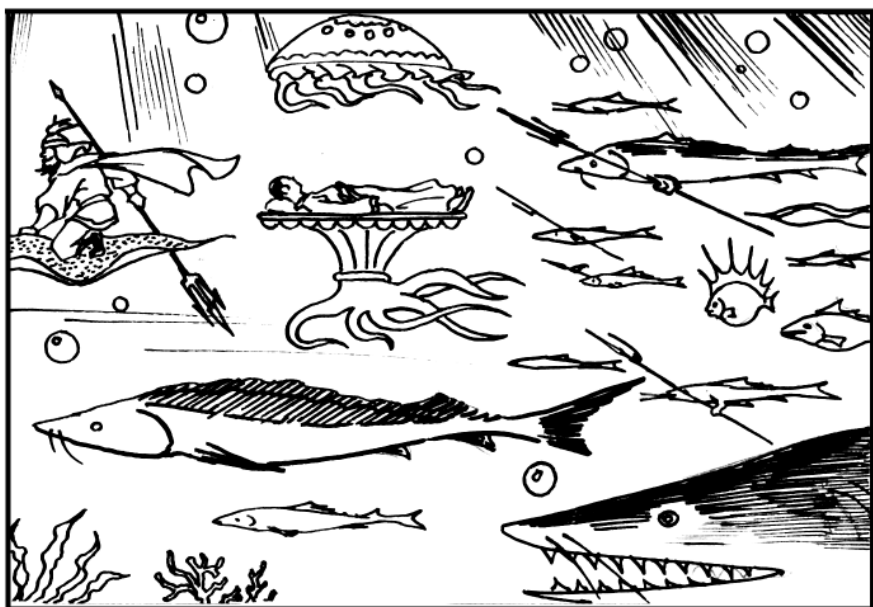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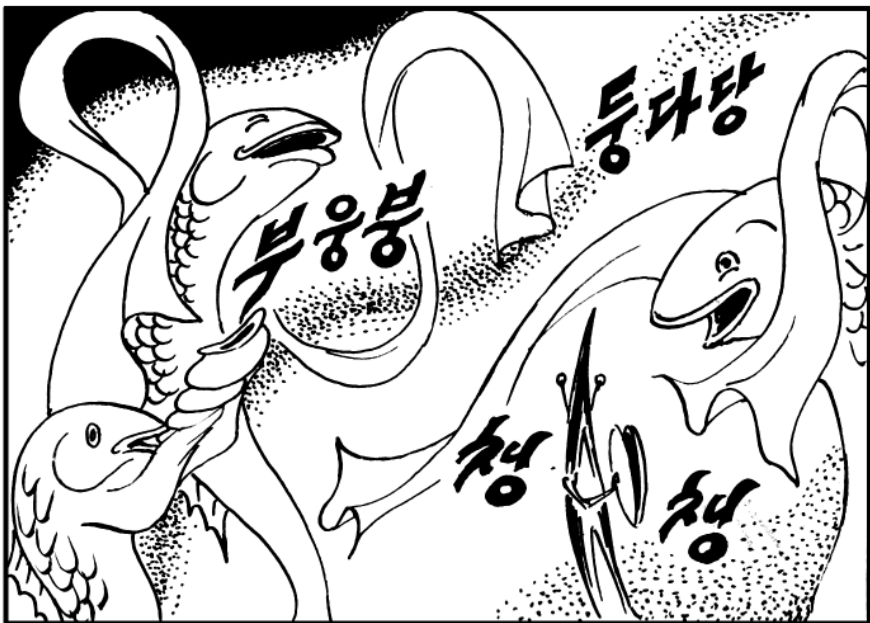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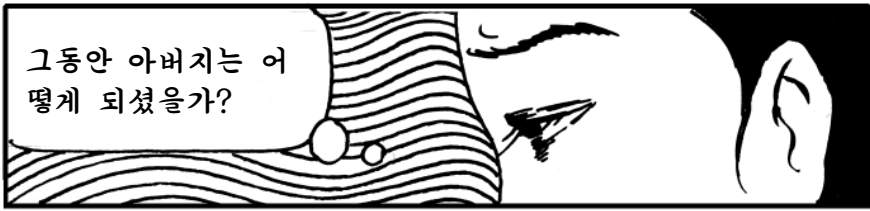
여기 룡궁생활이 어떻소이까?

저… 제가 여기 온지 얼마나 되였소이까?

닷새오이다. 하지만 이 룡궁에서의 하루는 저 바깥세상에서의 한달과 맞먹으니 아마…

예?

그동안 아버지는 어
떻게 되셨을가?

빨리 룡왕님을
뵙게 해주세요.

몸을 추세울동안 이 룡궁에서 근
심걱정없이 지내는것이 어떻소?

고마운 말씀이오나 전 하
루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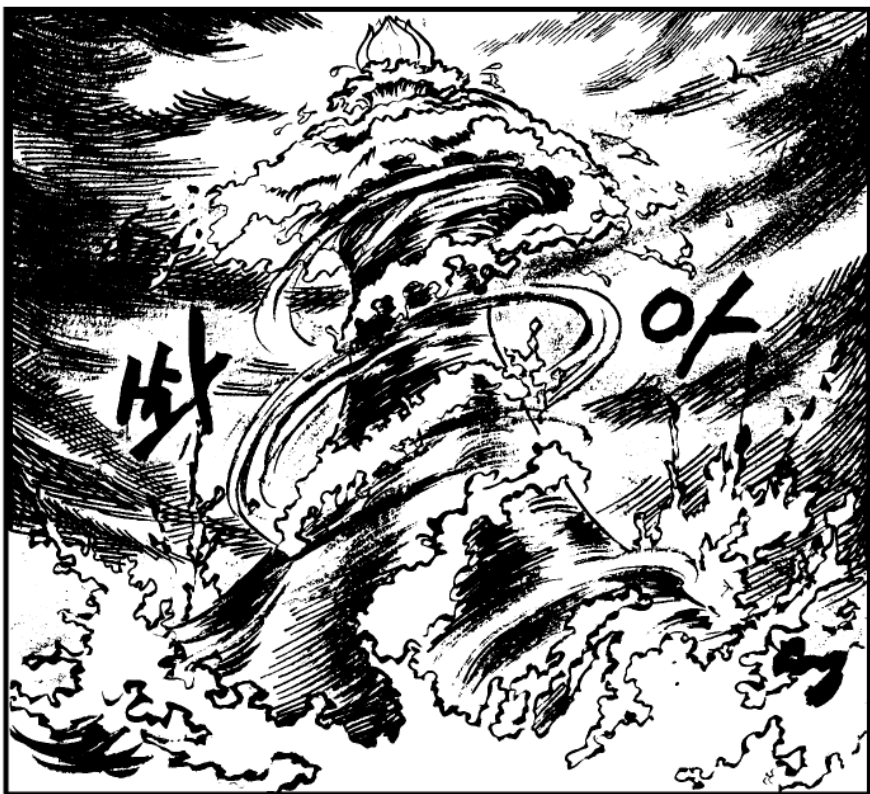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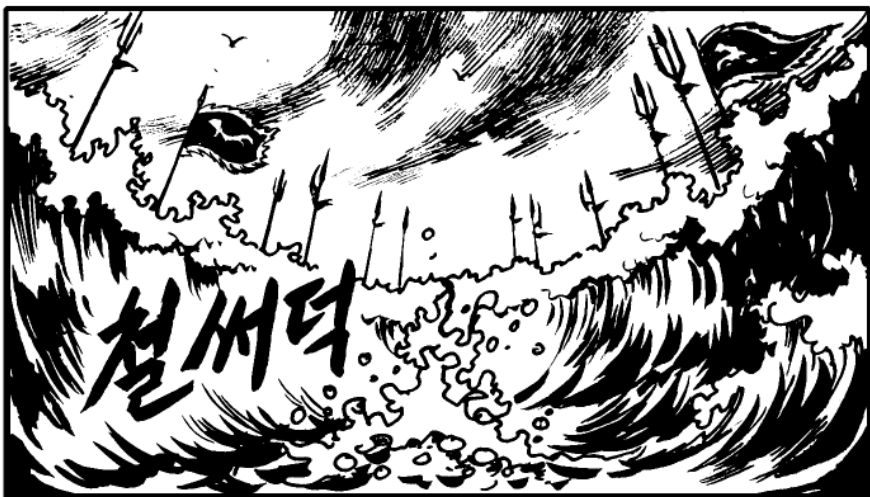
음?

제가 비록 여기서 금의옥식을 하며 호강하게 지낸다 해도 마음만은 늘 아버지한테 가있나이다. …지금쯤은 눈을 뜨셨는지 아니면 지팽이를 짚으며 동냥다니시는것만 같아 애가 타서 견디기 어렵나이다.

어서 일어나시오.
내 옥황상제께 아뢰겠소.
고맙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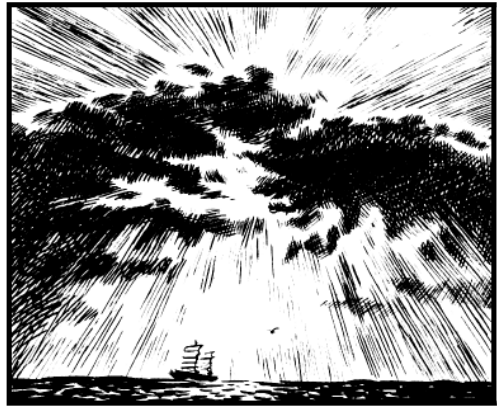
정말 갸륵한 마음씨를 지닌 효녀로다!

철써덕

쏴
아

돛배가 림당수에 들어서자 좌상로인을 비롯한 모든 배군들은 심청을 못잊어 림당수를 바라보고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웬 꽃이요?

바다에 피여난 꽃을 보기는 처음일세.
그렇다면 하늘의 월계화인가?

모르긴 해도 림당수우에 피여났으니 심소저의 넋인가보오.

바다의 배군들은 듣거라. 그 꽃은 다름아닌 하늘의 꽃이니 각별히 모셔다가 임금앞에 바치여라. 만일 소홀히 대했다간 너희들에게 날벼락을 내리리라!
알겠소이다.

이 희귀한 꽃을 어디서 구하였느냐?

저… 림당수우에 떠있는걸 건져왔나이다.

아! 정말 아름답도다.

꼭 어여쁜 처녀를 보는것만 같구나!

여봐라
이 희귀한 꽃을 정각에 모시도록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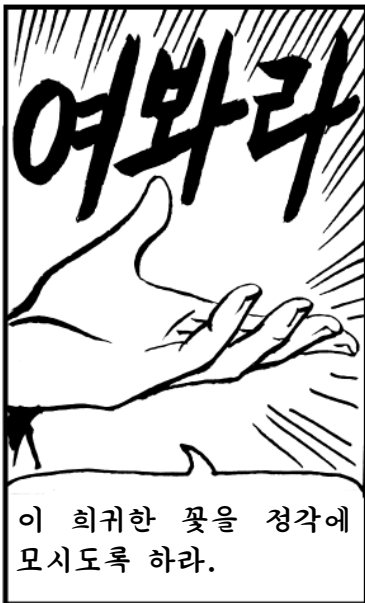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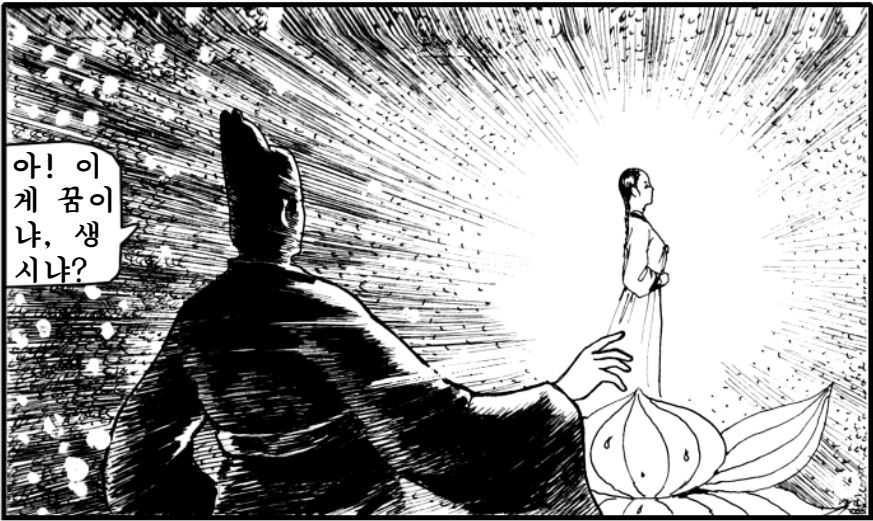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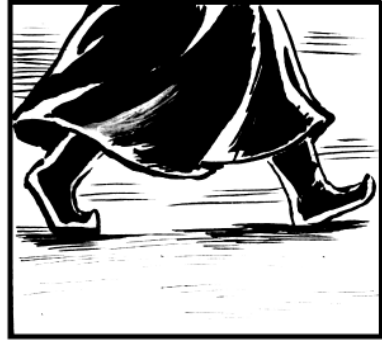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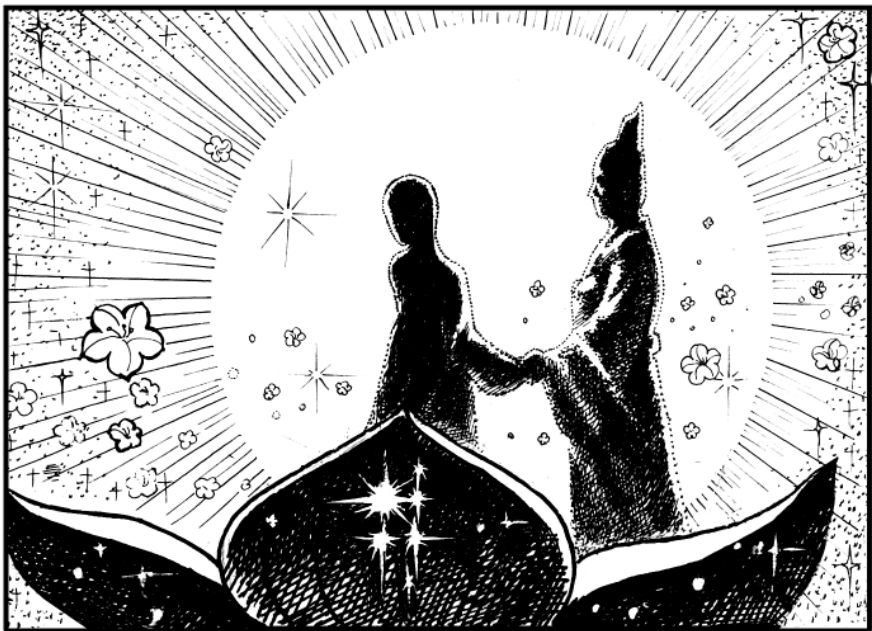
오늘 낮에 보았던 꽃이 계속 눈에 밟혀오누나.

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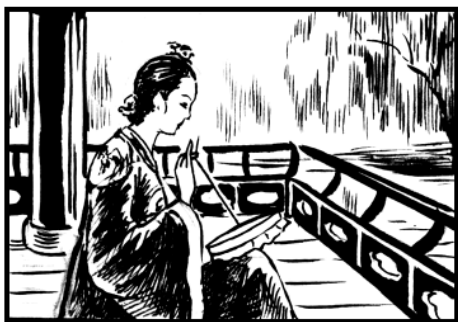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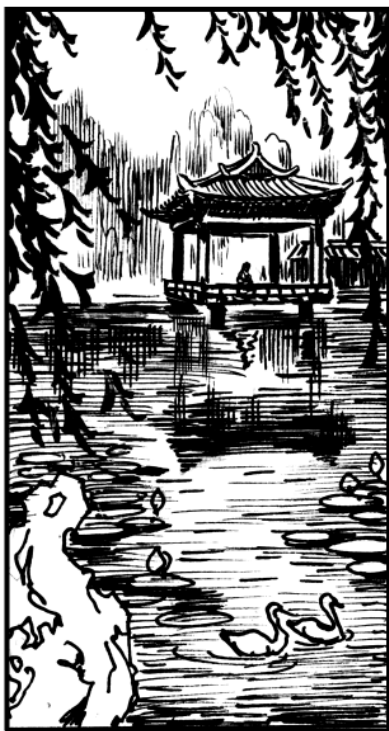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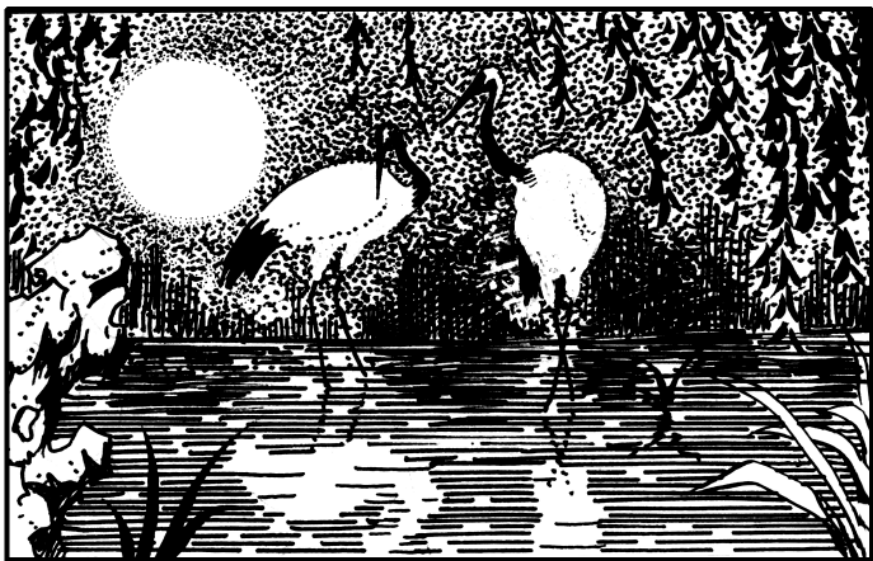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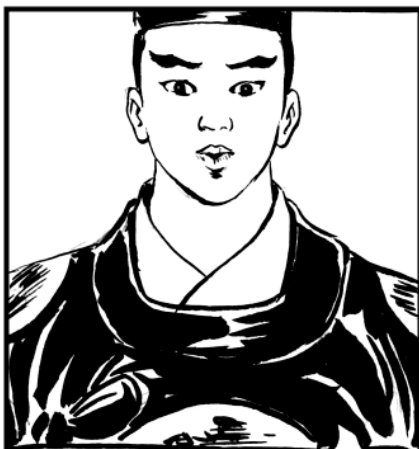
랑자!

그대는 누구요?

그대는 정말 아름답소!

흩날리는 꽃보라속에 만조백관의 축하를 받으며 국왕의 성대한 혼례식이 벌어지고 심청은 왕후가 되였습니다.

청아
어서 돌아오너라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오?!

오셨나이까.

어찌된 일이요? 무슨 근심이
라도 있는것 같은데 나한테도
말못할 사연이 있소?

미안하옵니다. 사실 소녀는
황주 도화동에서 사는 심학규
라는 봉사의 딸이옵니다.

왕후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요.

여봐라, 황주 도화동에 사람을 띄워 심학규란분을 속히 궁성에 모셔오도록 해라!

황주 도화동

오래 기다리셨지요?

아빠꽃이 웃으시면 애기꽃도 방긋 웃죠

청아

귀한 딸 잃고 그 많은 쌀을 억울하게 떼우고도 나는 여전히 눈도 못떴으니… 아, 내 신세 가련하도다!

배군들과 마을사람들의 보살핌으로 심봉사는 먹고 입고 지내기가 넉넉해졌습니다.

이때 마을에 살던 뺑덕어미라고 부르는 녀자가 스스로 심봉사의 후처가 되였습니다.

뺑덕어미의 속심은 눈먼 심봉사를 속이여 흥청망청 돈이나 물쓰듯 하며 살아보자는것이였습니다.

엿 잡수시오.

또 쌀을 주고 바꾸었소?
쾅

그건 무슨 소리요? 아껴 먹으며 살림살이를 착실히 해야지.
그럼 어디서 공짜로 났겠수? 이젠 살림도 얼마 안된다오.

흥!

싫으면 그만두오. 절 생각해서 일부러 바꾸어왔는데.

벼를 퍼주어 고기를 사먹고 잡곡으로 돈 바꾸어 술집에서 술먹기가 일쑤이고 까닭없이 이웃집에 욕설을 퍼붓고 정자밑에서 낮잠을 자는가 하면 술 취하여 한밤중에 울음을 터뜨리고 동네 남자를 꾀여내는 등 뺑덕어미의 행실이 못됨은 이루 다 헤아릴수가 없었습니다.

기름은 무
얼 했나?
뭘 하긴, 머리에 발랐지요.
에익!ㅡ 그럼 동네에 말
겼던 돈은 그대로 있나?
쾅
에그, 봉사
님도 참…
그 돈이야 살구
값으로 삼백냥…
호
떡값, 팥죽값으로
다 나간걸요.
뭐라구? 내 딸 청이가
모질게 죽으며 늙은 아비 먹고
살라구 준 돈을 네년이 뭐라
구 떡값, 살구값으로 다 녹인
단 말이냐?
그럼 어쩌우? 먹고싶은걸
안먹는 재주가 있소?

요새 어쩐지 신것만 당기고 밥은 딱 먹기 싫은게 태기가 생겼는지…
그게 정말이요?
거짓말하는 뺑덕어미의 속심을 알아차릴수 없었던 심봉사는 그저 좋아 싱글벙글하였습니다.
그러나 때없이 딸이 생각나 견딜수 없었던 심봉사는 끝내 세간살이를 다 팔고 뺑덕어미와 함께 도화동을 떠났어요. 그후엔 어떻게 되였는지…

아, 불쌍한 아버지!
그만 진정하오.

여봐라, 맹인잔치를 대궐안에서 나흘동안 벌리려고 하니 모든 고을에 알려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례하도록 하라!
알겠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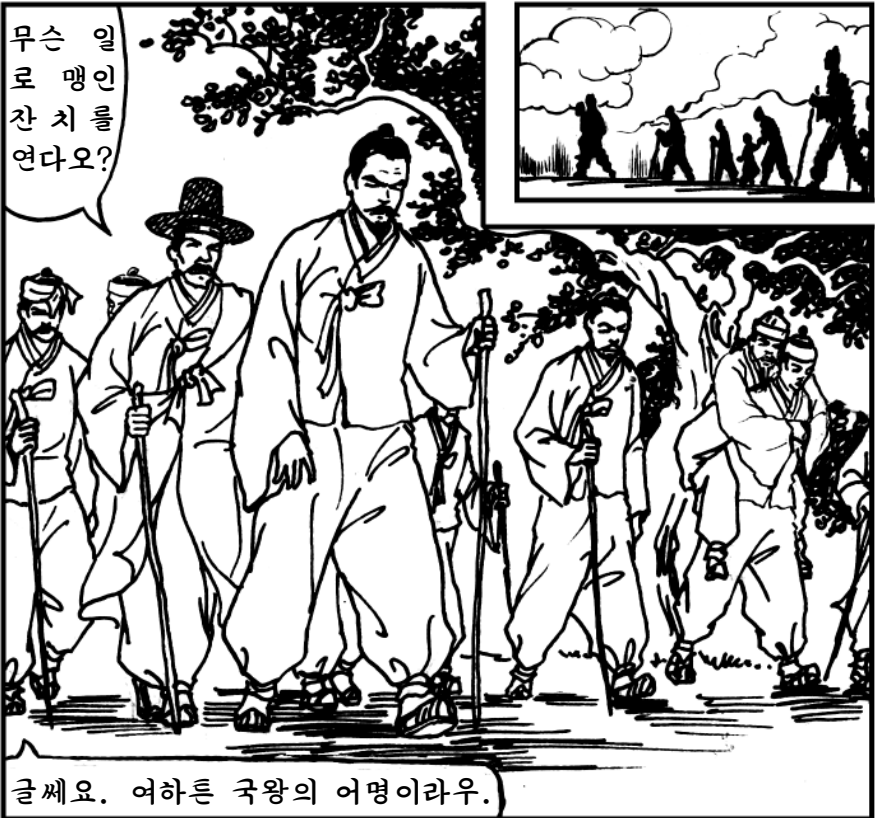
이랴

뚜거덕

뚜거덕

웅성
웅성
무슨 일로 맹인 잔치를 연다오?
글쎄요. 여하튼 국왕의 어명이라우.

한명도 빠짐없이 명부에 적으라.
알겠소이다.
궁성에서 맹인잔치라니? 꿈만 같소.
한끼 잘 먹어봅시다.

카ㅡ 술맛 좋다!
천천히 드시우다. 한상 가득한데…

벌써 사흘째구나.

!
왕후마마, 맹인명부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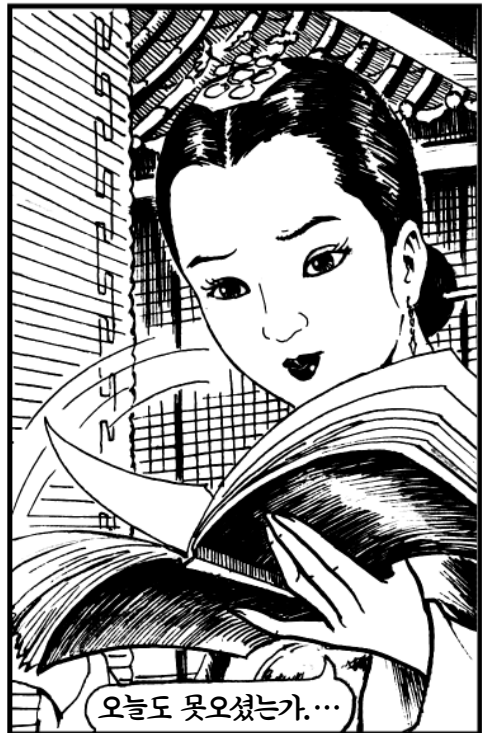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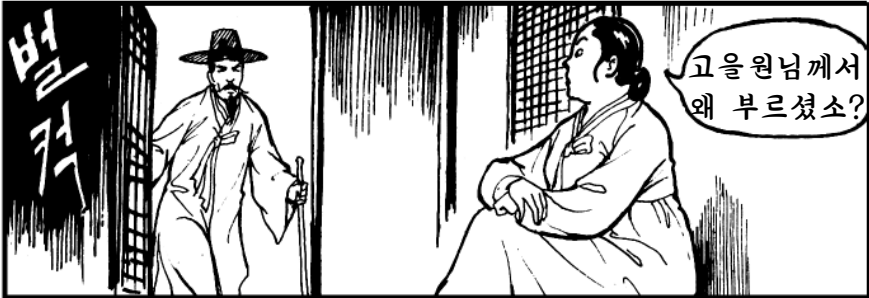
오늘도 못오셨는가.…

웅성 웅성

아버지!

나를 보고?…

아버진 어찌하여 못오실가.
아

끼륵
끼륵
아버지, 지금 어디에 계시오이까.

심봉사의 집
뺑덕어미를 데리고 도화동을 떠난 심봉사는 산설고 물설은 어느 지방에 와서 근근히 살아가고있었습니다.

벌컥
고을원님께서 왜 부르셨소?

마누라, 관가에 갔더니 서울에서 맹인잔치를 한다고 날더러 가보라우.

아유— 나도 같이 가겠소. 바늘 가는데 실이 아니 갈가요.
그래, 서울구경도 할겸 잘 되였네.

다음날

흥 흥~

주막집
주인 계시오?

하루밤 묵어갑시다.
들어오시우다.

드 드
렁 렁

주막집주인이
나를 어떻게…
우리 마을 황봉사가 자네를 알고 생각한지 오래되였다오. 이번 기회에 황봉사를 따라가면…
하긴 심봉사를 따라 서울로 올라간들 맹인잔치에 참례도 못할거요, 집에 돌아가재도 동네빚에 졸리기만 할판이니 차라리 황봉사를 따라가는 편이 낫지 않을가?
이 로자와 행장을 다 가지고가야지.
드르렁
드르렁
삐거덕
휘이

다음날

여보 뺑덕어미,
어서 일어나게.

꼬끼요

어

?

마누라!

이런…

어휴

하긴 마음 어진 청이 어미의 죽음도 겪고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 심청이와도 생리별을 하였는데 그런 년을 다시 생각하면 내가 미친놈이다.

한양성문

미안하지만 물 한그릇만 좀 주시우.

어서
드세요.

꿀꺽 꿀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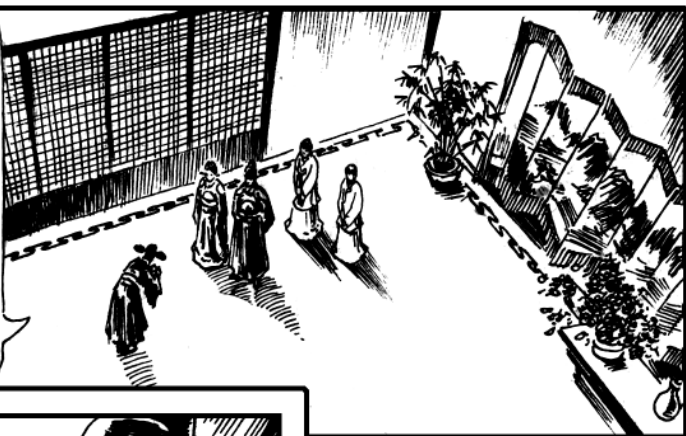
맹인잔치에 가시는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날이래요.
어서 가서 요기를 하시우.
얘야, 이분을
모셔다드려라.
알겠어요.

올사람이 더 없겠
으니 어서 대문을
닫으라구.
알겠소이다.

삐이익
문을 닫지 마시오이다.

허참, 왜 이리 늦으셨소. 오늘이 마지막날이라 수문장이 벌써 맹인명부를 가지고 들어가버렸는데…

에라, 막판이라 선심을 쓰겠으니 눈에 띄우지 않게 조용히 들어가라구요.

소인이 나흘 동안 지켜보았으나 당사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소이다.

너무 상심마오. 혹시 알겠소. 령험하신 부처님덕으로 눈을 뜨셨는지…

저의 아버님은 꼭 살아계실것이옵니다. 그리고 꼭 여기로 오실겁니다.

웅성 웅성

여보게, 소경팔자 한탄했더니 이런 날도 있구려.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

웅성
많이 드시오이다.
웅성
얼씨구 좋다!

여기오이다. 전 그럼…

아니?!

많이 드시오이다.

아, 아버지!…

얘야, 저기 앉은분을 모셔와라.

?
아버님, 왕후마마께서 아버님을 부르시니 저와 함께 가시오이다.

웅성
웅성

아, 아버님의 그 걸음새!

왕후마마께 문안드리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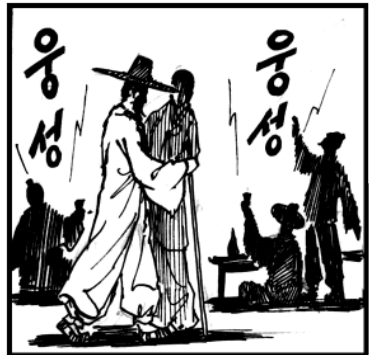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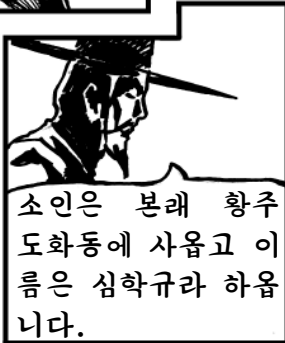
그러지 말고 어서 일어나시오이다.

어디서 사는 봉사님 이신가 요?

그 목소리 참 정답고 살뜰하다.
날 부르던 우리 청이 목소리처럼…

으흐흑…
그만 진정하 시오이다.

소인은 본래 황주 도화동에 사옵고 이름은 심학규라 하옵니다.

으흑…

일찌기 눈이 멀고 게다가 안사람마저 잃은 불행한 저에겐 청이라는 딸 하나가 있었소이다.

동냥젖 한번 배불리 먹여보지 못한 날 그래도 아비라고 뼈도 굵지 못한 어린것이 밥을 빌어다가 봉양하더니… 흑!…

열다섯살 잡히던 해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섬을 시주하면 이 애비가 눈을 뜬다는 말을 듣고 장사한다는 배군들에게 몸을 팔아 림당수 깊은 물에 목숨을 던졌소이다. 흑…
호

털썩
아,딸을 죽이고도 눈을 못뜬 내 팔자! 벌써 죽자고 하였으나 상감마마께 이 원통한 사연 아뢴 다음 죽자고 여기에 왔사옵니다.
청아,내딸아
아
아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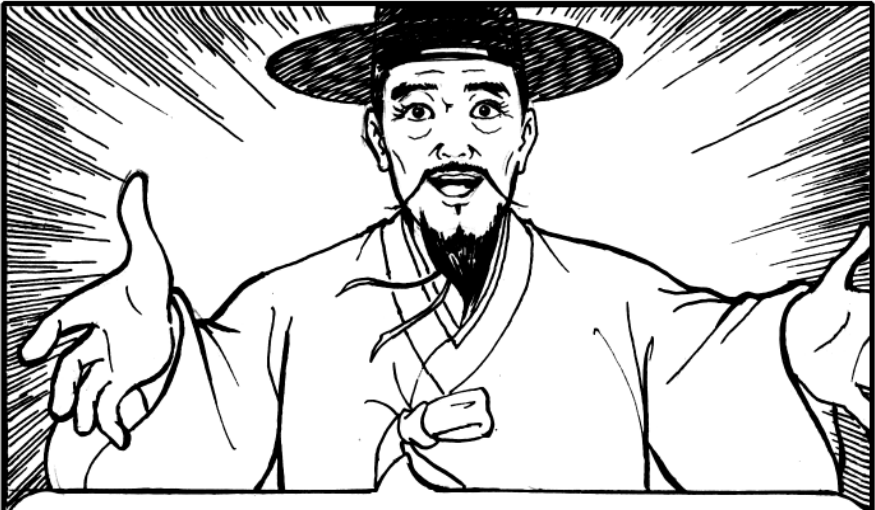
아, 불쌍한 우리 아버지!

나를 보고 아버지라니?
나는 자식도 없는
홀아비인데…

아버지,
여태 눈을 못뜨셨나요?
림당수에 빠져죽은 심청이가
살아왔어요. 어서 눈을 뜨고
나를 보옵소서!

아니, 그럴수 없어. 아니야!…

어휴
젖 좀 주오 젖 좀 주오
엄마 잃은 우리 아기
배가 고파 울고있소
배가 고파 네가 울면
너의 엄마 생각나서
눈먼 아비 가슴탄다

!!
응아

아, 내 딸 청이가!… 정녕… 흑흑… 살아있었단…
말이냐?… 흑흑… 어디 보자, 내 딸아!

아

아 세상이 보인다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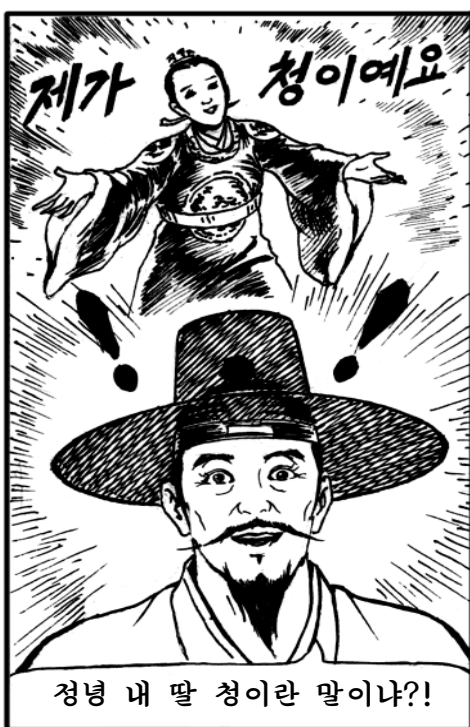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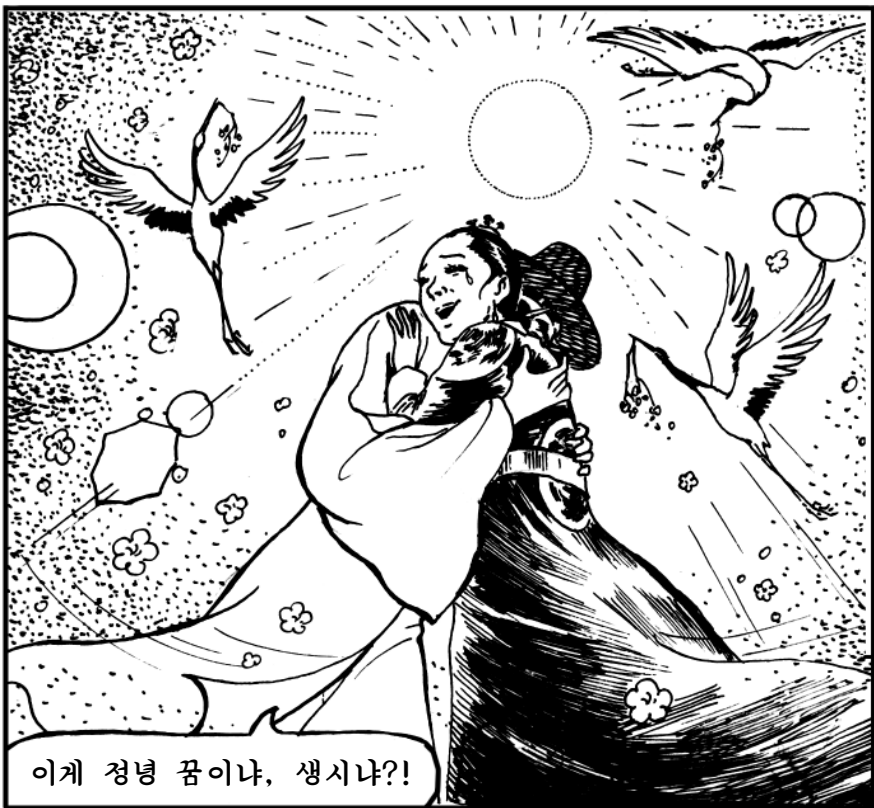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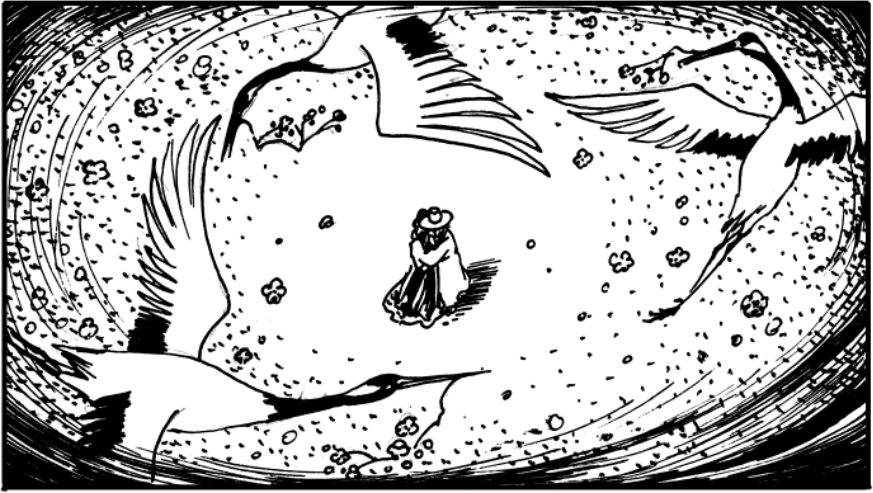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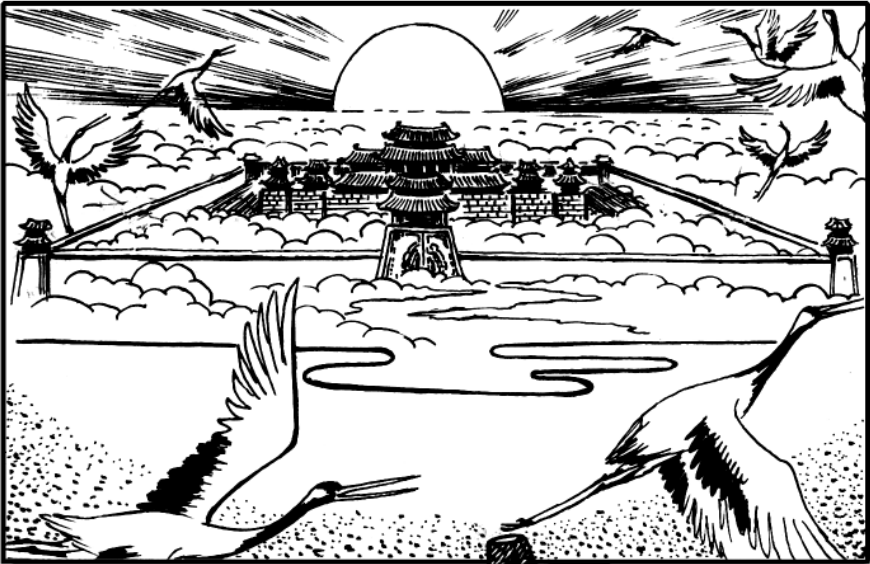
온세상이
보인다!

내 딸… 내 딸이
어디 있소?
아버지, 딸 청이가 여기
있어요.

제가 청이예요
정녕 내 딸 청이란 말이냐?!

이게 정녕 꿈이냐, 생시냐?!

아버지, 진정하세요.

어머니없이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아버님! 이 딸의 인사를 받아주세요.

심청의 지극한 효성이 끝끝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이 아름다운 전설은 동방례의지국인 우리 나라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입니다.

조선민화그림책 (15)

심 청 전

각 색	박성령	편 집	리은정
그 림	조기철	장 정	조기철
편 성	리진옥	교 정	김혜경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체99(2010)년 4월 5일
발 행 주체99(2010)년 4월 15일

ㄱ-96360 값 115원

ISBN 978-9946-21-242-5